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회장 강용희)는 지난 8일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를 진안군 군민자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2024년도 사업계획 논의 및 합동도 평화통일 관련 국가현안 공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강용희 회장은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다'며 "올 한해도 우리 지역의 물리를 안정화로 정립하고 지역주민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는 남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현법기구로서 37명의 자문위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진원=우태만 기자

"사회적 고립, 공동 노력 통해 해결 가능"

남원시 사회복지관, 고독사 공동대응 기관장 회의

남원시 사회복지관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네트워크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시민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남원시사회복지관도 이를 발맞추어 공동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 영역에서는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동충동·죽자동·형제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였으며 민간 영역은 남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원시공동자원센터, 남원시지역자활센터, 남원시 가족센터, 성일유엔아이 등에서 참여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드림복지회,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는 8일, 행복드림복지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익산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사업장이다.

주력품은 수·비전반, 자동재어반, 계장·계측 제어장치, 전기공사업 등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협력·생산하여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경식 시장은 행복드림복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성금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620-6333)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무주, 1분기 정기회의 · 위촉장 전수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무주군협의회(회장 서정호)는 지난 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1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9월 1일 제21기가 출범을 하였지만 무주군협의회 자문위원 다수의 사퇴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1분기 정기회의에서 제21기 자문위원 29명에게 대행기관장인 황인홍 무주군수가 위촉장을 전수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정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수행해야 할 실천적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모든 자문위원들이 민주평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으며, 단체 기념 졸업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산업혁신 인력양성 조안나 사업본부장, 산업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조안나 사업본부장(사진)이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전주대, 금오공대, 경북대, 캠퍼스종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과 컨소시엄으로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안나 사업본부장은 사업단의 주관기관 총괄 실무 책임자로 산학(연)프로젝트를 비롯해 산업 전주기 및 맞춤형 러닝 팩토리(Learning Factory), 전문 경합지식 전수와 산학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C2-Camp(Carbon Composites Camp)

등 산업 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교육 운영과 탄소복합재 산업현장 전문가로부터 석·박사과정생들에게 실무 지식/기술/노하우 전수하는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업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수혜인원 191명, 배출인원 60명, 졸업 33명, 산학프로젝트 34건, 교과목 개발 21건, 개선 29건 등 정량적 성과를 올렸으며, 산학(연)연계교육, 기업체 간담회, 취업지원프로그램, 탄소복합재 관련 컨소시엄 기업 발굴을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안나 사업본부장은 "온라인 세월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함께 힘써 준 오명준 단장님(유기소재섬유공학 교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참여기관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이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학부장 서명희)는 지난 7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서식에는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부 3학년 122명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대지인병원 효시링기족요양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선서식에서는 간호학생을 상징하는 휘장을 지도교수 3인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일일이 달아주며 이들을 축하해 줬다. 이에 학생들은 총불의식과 나이팅게일의 송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담긴 선서문을 낭독했다.

서명희 간호학부장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게 된 학생들에게 오늘은 앞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의미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면서 "제자이기 이전에 간호사 후배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뛰어난다"고 밝혔다.

우병훈 총장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의미를 잘 새기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학과에서 잘 키워나가길 바라며,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2024년 졸업생 109명 전원이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정은성 기자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가 지난 7일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읍지사는 입지원 30여명이 참여해 총 400만원을 기부했다.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챌린지로, 지난 2월 농협과 전북은행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읍지사는 이번 릴레이에서 다음 참여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를 지목했다. 지역 내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끈끈한 연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국 지사장은 "우리 공사는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



해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입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단천회,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에 100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8일 단천회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단천회 이연재 회장은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회원들의 성의를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지역 인재 육성에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일제점검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 시설 583개소, 비상소화장치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여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어 고장 난 곳을 미리 찾아내 수리함으로써 화재진압 시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품통, 관구, 스핀을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자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방수망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 여러분 또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천동농협, 영화칼럼리스트 초빙 문화특강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최근 농협 2층에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영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인 조주우 교수를 초빙해 '미술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문화특강을 개최했다.

김성곤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문화특강은 농사일로 힘든 조합원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활기찬 농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보다 유익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치매 예방 독거노인 요리조리 교실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로 요리조리 교실을 공개하면서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2시간씩 8회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실은 영양 섭취가 취약하고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부족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와 레크레이션,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과 노후에 따른 기억력 감퇴는 점차 치매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디자인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허로 시사하는 독거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기에 이번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이웃 주민과 소통하며 두뇌활동과 손 감각을 자극해 인지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김제시 치매안심센터(540-1327),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연중무휴)로 문의하면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환경정비 · 채소 씨앗 나눔 활동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임직원들은 지난 8일, 남원문화원 인근 주변에서 환경정비 및 채소 씨앗 나눔 활동을 펼쳤다.

2024년 범농협 사회공헌 3월 실천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불맞이 환경정화 활동 및 채소 씨앗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실시됐다.

오영석 지부장과 이성로 센터장은 "새롭게 돌아나자 농협 씨앗처럼 우리들의 가슴과 지역사회 이웃에게도 사랑과 희망이 함께 지어져야 한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